



부처님 오신 날에 ‘세 절 밟기’를 하고 온 신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래도 되나요?

그분들, 교회에서는 천상의 복을 얻고 땅에서는 절을 통해서 복을 얻겠다는 심보네요. 교회는 상대방의 종교행사를 비방하거나 그릇되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멈출 수가 없고 결코 멈추지도 않습니다. 타 종교인들의 행사를 기꺼워하는 마음에서 ‘구경’하고 ‘관람’하고 혹 참여하는 일이 그릇되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절을 찾고 더욱이 세 절 마당을 밟으면 복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면 대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은근슬쩍 넘어가고 이력저력 봐주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지만 돈 벌고 승진하고 좋은 학벌 갖추기 위해 ‘비는’ 사람만 복을 주는 우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이교인이었을 때에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려 정신없이 휩쓸렸다”(1코린 12,2)는 것을 아십니다. 이러한 무지가 가여워서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조상들이 가르쳐 준 대로 고집스럽게 바알들을 따라”(예레 9,13) 사는 우매함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을 우롱하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만큼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세 절 밟기’ 사건이 사제들의 마음을 앓게 하네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외젠느 뵈르낭.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1898, 파리 오르세 미술관



| 주님을 경외함 |

(집회서 34,14-20)

시작 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6장 “온 세상이 주님을”
1-2절까지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가 당신께 온전히 의탁하고 당신께
희망을 두게 하소서.
 - 저희의 방패이시며 힘 있는 버팀목이시며 쉼터
이신 주님, 당신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집회서 34장 14절에서 20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34, 14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영은 살아 있으리라.
15 그들의 희망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께 있기
때문이다.

- 16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무것도 겁내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그의 희망이시니 무서울 것이 없다.
- 17 주님을 경외하는 이의 영혼은 행복하다.
- 18 그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가 그를 후원하는가?
- 19 주님의 눈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위에 머무시니
그들에게 든든한 방패요
힘 있는 버팀목이시며
열풍을 막아 주는 쉼터요
한낮의 피약별을 가려 주는 그늘이시다.
또 비틀거리지 않게 지켜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 20 주님께서서는 영혼을 들어 높이시고
눈을 밝혀 주시며
치유와 생명과 복을 내려 주신다.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주님께 의탁하고 희망을 두는 신앙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라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찾아 나섰다. ‘향락’에 몸을 담가보고, ‘술’에 빠져 보고, ‘큰 사업’도

해보고,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한 어떤 어른보다도 ‘큰 세력’도 가져보았다.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고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다 누렸지만, 결국 모든 것은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요 ‘괴로움’일 뿐이었다”(코헬 2,1-17 참조).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말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들어 보자.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지당한 것이다”(코헬 12,13). 솔로몬의 이 말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말마디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아들어야 한다.

하느님을 공경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이다. (차동엽 신부, 『무지개 원리』 2007, 342p)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6장 “온 세상이 주님을” 3-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청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마태 7,7) |

- 구암동 본당 구역분과장 김성기(아가페) -

구암동 본당은 마산 창원 끝자락에 위치해 짧은 기간을 살다 가는 교우들이 많아 ‘잠시 머물다 가는 본당’이라는 말이 있으며, 주택 밀집 지역으로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지만 가족적인 분위기에 끈끈한 정이 넘치는 본당입니다. 본당행사는 주로 소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 신자 400여 명(학생 50명)중 217명 정도가 소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당청소, 미사안내, 전례협조와 전입교우, 신영세자, 예비신자, 어려운 이웃 찾아보기 및 반원들의 경조사 챙기기, 장례 시 연도 시간을 배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반별로 부활계란 콘테스트를 하여 기쁨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제대 위에 전시하여 축복을 받아 전 신자들이 나누어 가고 이웃들과도 나눈답니다.

소공동체는 3개 구역 12개 반이며, 남·여 혼성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본당이 활성화된다는 사명 아래, 모든 반원들은 복음 나누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통해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구암 공동체로 발전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소공동체는 3개 구역 23개 반으로 소공동체장 없는 반이 거의 절반이었고 모임 참석율도 저조하였으며, 광범위한 반 관리로 소공동체가 침체되자 신부님과



상의하여 반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23개 반을 12개 반으로 개편하고 새로 맡은 소공동체장과 총무들의 희생과 봉사로 현재는 아주 활력이 넘치는 본당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지난 해 11월에는 신부님과 구역장, 소공동체장, 총무들과 함께 경주에 1박 2일 야유회도 다녀왔습니다.

본당에서는 2층 성당 복도에 소공동체 출석 현황판을 붙이고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매주 주일 미사 후 축일 선물과 박수로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이 소공동체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에, 이제 ‘잠시 머물다 가는 본당’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본당’, ‘그립고 다시 오고 싶은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본당’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마태 7,7-8)